

방통위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 한-AIBD 공동워크숍 개최 등 -

◆ 기 간 : '24. 9. 1. (일) ~ 9. 5. (목)

◆ 방문지역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24. 9.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출장 주요 결과 및 시사점	2
III. 방문 기관별 상세 결과	3
① 한-AIBD 공동워크숍 개최	3
② 아시아 미디어 서밋 (AMS, Asia Media Summit) 참관 ...	12
③ 툰 압둘 라작 방송 정보 연구소 (IPPTAR, Institut Penyiaran dan Penerangan Tun Abdul Razak) 관계자 면담	16
④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 (AIBD,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 관계자 면담	19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와 공동워크숍 개최 및 사무국 관계자 등과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

□ 출장기간 : '24년 9월 1일(일) ~ 9월 5일(목), 3박 5일

□ 출장국가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출장자 : 엄정환 국제협력담당관, 김문준 감사관, 김혜원 주무관

※ KISA 국제협력인프라강화, KCMF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관계자 등 동행

□ 대표단 주요 활동

- 한-AIBD 공동워크숍 주관(개회사·세션발표 등) 및 AMS* 행사 참관

* AMS(Asia Media Summit) : AIBD가 주관하는 아태 지역 유일의 정상급 국제방송회의

- AIBD 및 IPPTAR* 관계자 등과 미디어·콘텐츠 분야 협력 논의

* 툰 압둘 라작 방송정보 연구소 : 말레이시아 국영방송의 방송·기술·ICT 연구·교육기관

일 자	일 정
9.2.(월)	○ 방통위-AIBD 공동워크숍 개최 * 개회사, 세션발표 등
9.3.(화)	○ AMS(Asia Media Summit) 행사 참관
	○ 툰 압둘 라작 방송정보 연구소(IPPTAR) 관계자* 면담 * 로슬란 아리핀(Rosalan Ariffin) 소장 등
9.4.(수)	○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관계자* 면담 * 필로메나 그나나프라가삼(Philomena Gnanapragasam) 사무국장 등

II. 출장 주요 결과 및 시사점

① 미디어·콘텐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 (ICT 기술 발전) AI 딥페이크, 폭력·혐오 조장 콘텐츠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며, 언론인의 책임감 향상을 위해 윤리교육도 요구됨
- (현업인력 역량강화) 말레이시아는 온라인 미디어와 관련한 현업 종사자들을 위한 윤리, 기술 교육 과정이 있으며, '프레스 데이'를 개최하여 시니어 미디어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한 재원도 마련하고 있음

② 미디어 공공성 유지

- (소외계층 접근성) 미디어 소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며, AIBD는 워크숍 등을 통해 소외계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중임
- (미디어 이용 격차) 말레이시아는 와이파이가 잘 갖추어져 있어 미디어 이용 격차가 크지는 않음. 다만, 새로운 기술 전파에 대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임

③ 한국과의 협력 강화

- (정책연구) IPPTAR(툰 압들 라작 방송정보 연구소)는 미디어 분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하는 것을 희망
- (AMS 개최) AIBD(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는 '25년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 AMS*(아시아미디어서밋)에서 'AI 윤리'에 대해 한국이 주제 발표를 하는 것을 희망하였으며, '26년 AMS의 한국 개최 요청

* AIBD 주관으로 아-태지역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정상급 국제방송회의

- (IBCC 참석) IBCC*(방송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9.26) 행사에 AIBD 사무국장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AIBD측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IBCC :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production Conference

III. 방문 기관별 상세 결과

1 한-AIBD 공동워크숍 개최

□ 개요

- (행사명) 한-AIBD 공동워크숍
 ※ 제19차 AIBD AMS('24.9.1~5.) 사전워크숍으로 연계 개최
- (일정·장소) 2024.9.2.(월) 09:00~16:30, 쿠알라룸푸르 IPPTAR
- (참가자) 아태지역* 미디어 기관 종사자(콘텐츠 프로듀서, 뉴스룸 에디터, 저널리스트, 학계 등), AIBD 사무국, 발표자 등 40여명
 * 한국,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 파키스탄, 홍콩,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등
- (주요 내용) 취약그룹 미디어 접근성 증진 관련 세션발표 및 토의

구 분		내 용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사(AIBD) / 개회사(방통위) ○ 단체사진
발표 및 그룹토의	세션1	취약그룹을 위한 접근가능 미디어의 중요성과 지원 전략 ※ 발표자 : 엄정환 과장(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세션2	접근가능한 미디어 환경 조성 ※ 발표자 : 유창환 선임(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접근부)
	세션3	취약그룹을 위한 포용 방송 ※ 발표자 : Dr. Sreedher Ramamurthy(인도 Apeejay University, 자문 명예교수)
	세션4	취약그룹을 위한 미디어 접근성 콘텐츠 촉진 ※ 발표자 : Mr. Kalle Frust(전 노르웨이방송공사(NRK) 유아청소년부 부장)
	세션5	국가별 사례 공유(좌장 : Dr. Sreedher Ramamurthy) ※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폐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사(AIBD) ○ 수료증 수여(방통위)

□ 세부 내용

① 한-AIBD 공동워크숍 개최식

○ (일시·장소) 2024.9.2.(월) 09:00~09:30, 쿠알라룸푸르 IPPTAR

○ (개회사) 방송통신위원회 엄정환 국제협력담당관

○ (주요내용)

-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차별 없는 미디어 환경 구축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임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지원은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보편서비스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미디어 접근성 및 포용성 개선을 위한 각 국가의 지식과 정보가 서로 공유되고 논의되길 희망함
-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미디어 세상을 위해 AIBD 회원국들과 적극 협력하겠음

개회식·단체사진



② 세션 1: 취약그룹을 위한 접근가능 미디어의 중요성과 지원 전략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엄정환 국제협력담당관)

-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접근 지원은 사회 구성원간 정보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
- 한국은 2007년 뉴스나 국가적 행사, 선거방송 등의 장애인방송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나아가 2009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2011년에는 방송법을 개정하여 방송사가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였고, 장애인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음
 - 2017년에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지침을 제공하고, 2021년에는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두 번째 종합계획을 발표
-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장애인 방송 법·제도,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 TV 수신기 지원, △현 개발 중인 음성기반의 수어방송 시스템 등을 통해 공유
-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인방송정책은 시청각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나, 이에 대한 범위를 발달장애 등 미디어 접근성을 제한 받는 모든 장애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 권리 신장을 위해 AIBD와 같은 방송 국제기구 회원국 간 공조와 국제협력이 중요해짐

< 질의 응답 >

① (질의) 한국이 시행 중인 다양한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강화 제도가 OTT 플랫폼에 적용될 경우,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답변) 현재 OTT 플랫폼으로의 적용은 도입단계로 정부 지원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추가적 정부 지원 없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OTT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음

② **(질의)** 장애인을 위한 TV 수신기 보급 및 자막, 수어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장애인 방송 관련 지원에 대한 자금조달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답변) 하드웨어 측면에서 장애인 TV 보급 사업은 정부 재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2025년까지 전체 시각·청각 장애인의 50%까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수어, 자막 등 방송사업자에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부과하여 운영자들도 이에 대한 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으며, 수어 통역 등의 인력양성은 정부에서 지원하기도 함

세션1 발표



세션1 PPT 자료



③ 세션 2: 접근가능한 미디어 환경의 조성

(발표: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접근부 유창환 선임)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5년 설립 이래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국민을 중심으로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미디어와 관련된 접근성, 활용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 기여 중임
- 한국 정부의 접근성 높은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 충분한 장애인 콘텐츠 제공, △ 접근 편의 기기 보급, △ 취약계층 대상의 미디어 교육 제공 등이 있음
- 미디어 접근성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정보와 의사소통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것임
- 미디어 접근성 관련 정책 시행에는 문화, 기술, 경제상황, 정책 우선 순위 등 각 국가별 환경에 따른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질의 응답 >

- ① **(질의)** 모두에게 동등한 미디어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한국 정책 및 제도는 매우 유익한 사례라 생각함. 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성 증진뿐만 아니라 이들이 미디어 산업계에서 고용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존재하는가?

(답변) 장애인 고용 정책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전 부문에 걸쳐 의무화 하고 있음.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는 수어방송 제작 시 농아 장애인 활용, KBS에서 시각 장애인 아나운서를 고용한 사례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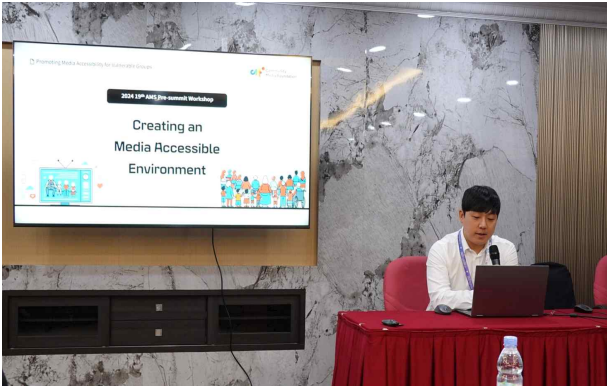
- ② **(질의)**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방송 및 자막방송은 시청 몰입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으며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방안이 있는가?

(답변)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어화면의 크기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음. 아직 공식 제도화 단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들이 지속 개선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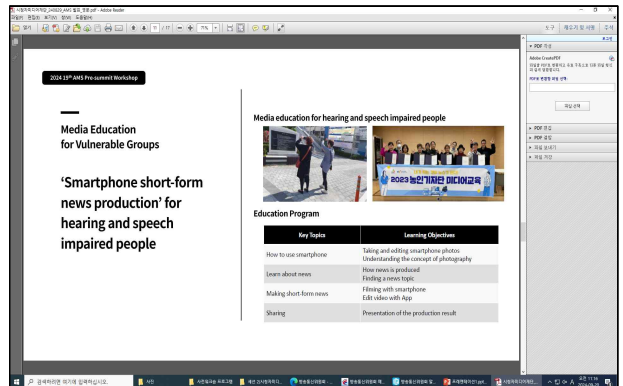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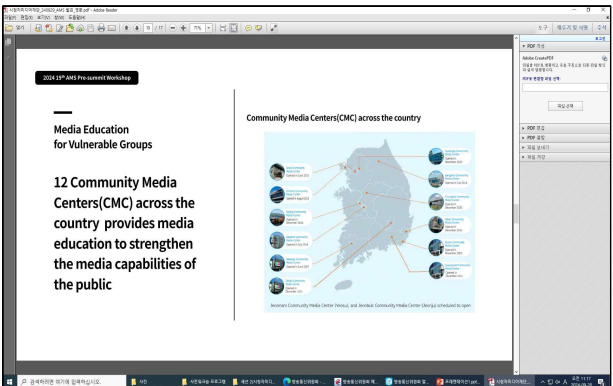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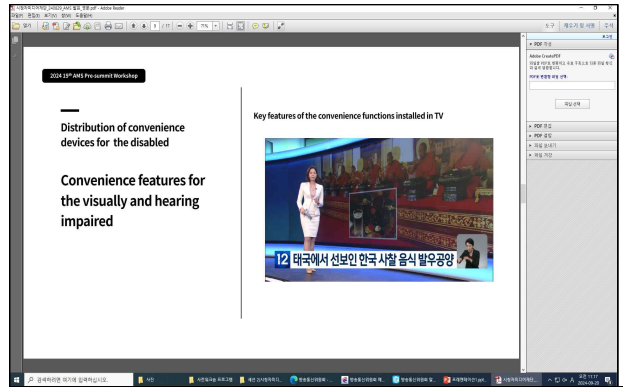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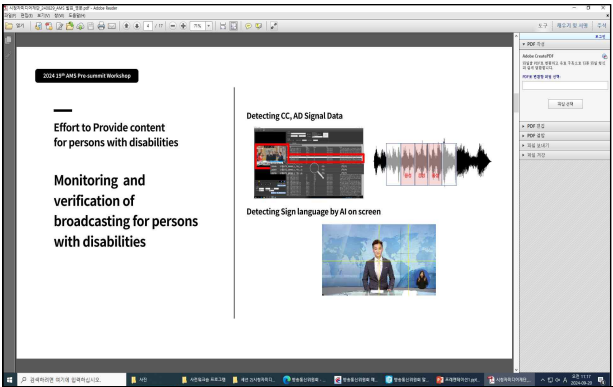
③ (질의) 현재 한국에서 장애인 방송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답변) 한국의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에서 가장 많이 실행 중이며, 그 외 지상파 방송국들도 법에 따라 장애인 방송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함

세션2 발표



세션2 PPT 자료



④ 세션 3: 취약그룹을 위한 포용 방송

(발표: Dr. Sreedher Ramamurthy 인도 Apeejay University 명예교수)

- 고령층, 장애인, 어린이, 여성, 저임금계층, 소수 인종 및 토착민 등 미디어 환경에서는 다양한 취약계층이 존재
- 공동체 라디오(Community Radio)는 이러한 취약계층이 스스로 계획하고, 자체적인 콘텐츠, 뉴스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인도의 성공적인 공동체 라디오 사례 소개
 - “Anubhav” : 코로나 기간 노년층의 우울증 극복 및 재능 기여를 위해 시작된 노년층 팟캐스트 제작 프로젝트로 인도 국립사회방위(NISD)가 지원하며, 녹음 스튜디오 제공 및 노년층 대상 교육 실시
 - “Connect FM 107.8” : 특히 벽촌·오지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을 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으로, 2012년 인도 농업부로부터 시드머니를 지원 받아 농촌 개발 NGO인 SM Sehgal Foundation이 설립·운영

⑤ 세션 4: 취약그룹을 위한 미디어 접근성 콘텐츠 촉진

(발표: Mr. Kalle Frust 전 노르웨이방송공사(NRK) 유아청소년부 부장)

- 과거 수동적으로 비추어지던 어린이층은 현대 사회에서 독립적인 개인이자, 각자의 가치를 가진 능동적인 사람으로 인식이 변화함
 - 어린이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 및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과 송출은 어린이들의 자율권 및 자존감 강화, 정체성 확립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오늘날 어린이들은 기존 레가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정체성, 언어 및 문화 보존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노르웨이방송공사(NRK)는 16년 전부터 어린이 채널(NRK Super)을 운영 중임
 -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송출하고, 일년에 약 3천만 달러(약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약 200여명의 직원이 해당 채널에 근무 중에 있음
 - NRK 어린이 채널의 시청률은 유튜브 만큼 높게 나오며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제작 중에 있음
-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어린이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어린이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이에 맞는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

⑥ 세션 5: 국가별 사례 공유 및 종합 토의

- 주요 참석국가 방송사별* 포용적이고 접근가능한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과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종합 토의 진행
 - * 미얀마 MRTV(국영), 파키스탄 PTV(국영), 말레이시아 RTM(국영), 인도 All India Radio News(국영), 파푸아뉴기니 NBC(국영)
 - 수어 통역, 자막 제공, 다양한 언어 서비스, 취약계층 콘텐츠 제작 등의 노력이 진행 중이나, 발표 국가 대부분이 아직 법적 의무화 단계가 아닌 방송사별 자발적 기여활동으로 진행 중
- AIBD가 방송 국제기구로서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보장 및 촉진을 위해 해당 이슈를 주요 논의 의제에 지속 포함시키고, 방송사가 일정 비율의 수어 프로그램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언됨

세션3



세션4



세션5



⑦ 한-AIBD 공동워크숍 수료증 수여

o 한-AIBD 공동워크숍 참가자 19명*(캄보디아 등 10개국)에 대해 수료증 수여

* 수여대상 : “취약그룹 미디어 접근성 증진” 공동워크숍 참석자(연사 제외)

< 한-AIBD 공동워크숍 수료자 명단 >

(캄보디아) Sles Alfin, San Sophea, (홍콩) Lun Pui Ki, (인도네시아) Chaerini, (미얀마) Ye Naing, (몽골) Vaashaa Baatarkhuu, (파키스탄) Aman Ui Haq, (파푸아뉴기니) Mary KoKoha, (베트남) Quang Anh Do, Do Anh Thu, (말레이시아) Buvanewary Veramohan, Asnifatheen Binti Anuar, Annie Pastinal Raipen, Azmil Reza bin Zairakithnaini, Rachel Punitha, Divinish Uithayakumar, Lau Jing Pin, Gogulamathe Shamugam, (인도) Sreeher Media Expzri

공동워크숍 수료증 수여



2 아시아 미디어 서밋 (AMS, Asia Media Summit) 참관

□ 개요

- (행사명) 제19회 아시아 미디어 서밋(19TH Asia Media Summit)
 - ※ '04년부터 개최된 AIBD가 주관하는 아태 지역 유일의 정상급 국제방송회의로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중동, 북미지역 등에서 매년 60여개국이 참가
- (일정·장소) 2024.9.1.(일) ~ 9.5.(목), 쿠알라룸푸르 BAC Spaces
- (주요 내용) 개회식, 시상식, 포럼 등 실시

구 분		내 용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사(AIBD 사무국장, BAC Education 그룹 최고전략담당자) ○ 특별연설(캄보디아 정보부 장관, UN ESCAP 사무처장) ○ 기조연설(말레이시아 통신부 차관보)
발표 및 토의	세션1	미디어 : 글로벌 다이나믹 이동 ※ 글로벌 커뮤니티 구성을 위해 균형잡힌 미디어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 모색
	세션2	창조적인 콘텐츠 산업에서의 기회요소와 도전과제 ※ 영화의 미래, 세계화된 환경에서 시장의 공명 모색
	세션3	미디어 복원력 강화 ※ 사이버 보안 위협 등 도전 과제 속에서 회복 탄력성 강화방안 모색
	세션4	콘텐츠 쇼케이스 ※ 콘텐츠 홍보, 판매 등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 제공
	세션5	포용적인 방송 ※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포용적이고 접근가능한 방송을 탐구
	세션6	최신 방송 기술의 활용 ※ 새로운 플랫폼 적응,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척 등을 위한 전략 탐구
	세션7	인공지능 : 기술, 신뢰, 변혁 ※ 딥페이크가 대중의 신뢰에 미칠 영향과 신뢰회복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 논의
	세션8	CEO 테이블 토크 : CEO가 반드시 알아야할 10가지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혁신 속에서의 효과적 리더십 전략 논의
AIBD 국제어워드 시상식		방송프로그램과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TV 및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시상

- (참가 규모) 약 460여명 참가(아태 지역 등의 방송인, 학계, 정부기관 등)

□ 주요 참관 내용

① 아시아 미디어 서밋(AMS) 개최식

- (환영사, Philomena Gnanapragasam AIBD 사무국장) 빠른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는 전통 미디어를 잠식시키는 위협요소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도 존재. AI,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올바른 미디어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지속 발생 중에 있으며 미디어계는 정보 제공에 있어 올바른 출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 등이 필요함을 강조
- (특별연설, H.E. Neth Pheaktra 캄보디아 정보부 장관) 미디어 부문에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AI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제적 차원의 공동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또한 캄보디아는 2019년 AMS를 개최한 것에 이어 2025년 제20차 AMS 개최 확정을 발표
- (기조연설, Teo Nie Ching 말레이시아 통신부 차관보) 현대사회는 디지털 미디어 혁명이라 할 만큼 관련 생태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 중에 있음. AI와 같은 신흥기술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허위정보 및 오보, 나아가 이로 인한 지리적, 종교적 갈등 유발 등을 발생시키기도 함. 또한 가짜 뉴스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미디어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AMS 개최식



② AIBD 국제어워드 시상식

- 방통위(골드스폰서 감사패), KBS(베스트 TV 프로그램 상*) 수상
 - 수상작 : 시사기획 창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 KBS('24.2.27 방영)
- RTM(베스트 라디오 프로그램 상*) 수상
 - 수상작 : <Good Morning Friends>, RTM(말레이시아)
- AIBD 여성 지도자 상 수상
 - Sudruetai Lertkasem (태국 공보부 국장)
 - Dato' Anis Rizana Mohd Zainudin (말레이시아 관세청 국장)

방통위 감사패 수여



KBS 베스트 TV 프로그램 상 수여



대표단 기념촬영



[참고1] 아시아 미디어 서밋 (AMS, Asia Media Summit) 개요

-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체로 2004년 출범한 아태지역 유일의 정상급 국제방송회의
-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중동, 북미지역에서 매년 60여개국 500여명의 정부정책결정자, 언론사 대표 등이 참가

< AMS 연혁 및 주요 의제 >

회차	장소	주제	주요 의제
1차 (04.4.17 ~ 22)	-	-	-미디어와 이슬람/문명의 대화 -글로벌화/문화다양성/뉴스아젠다
2차 (05.5.28 ~ 3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평화와 변영 증진	-국제화와 문화적 도전/평화저널리즘 -표현의 자유 v. 미디어 소유권
3차 (06.5.28 ~ 3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역과 문화간의 대화 조정	-언론의 독립과 책임/방송통신융합 -세계시청자 위한 로컬콘텐츠 개발
4차 (07.5.26 ~ 3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재림(再臨), 재고(再考), 재충전 및 혁신	-참여하는 미디어 시대 -드라마/리얼리티쇼: 새로운 포맷
5차 (08.5.25 ~ 2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새로운 비전	-신규매체 등장과 대응/UGC -신규매체 비즈니스 모델
6차 (09.5.26 ~ 27)	중국 마카오	미디어와 능력 구축	-인력개발을 통한 능력 배양 등
제7차 (10.5.24 ~ 27)	중국 북경	창의, 신뢰, 권리, 책임	-미디어 윤리, 창조성 -공영방송 규제
제8차 (11.5.23 ~ 26)	베트남 하노이	디지털미디어의 확산: 방송의 역할 재정립	-콘텐츠 활용 및 창출의 혁신 -방송기술 혁신/뉴미디어 최적화
제9차 (12.5.29 ~ 30)	태국 방콕	-	태국 공영방송(PBS) 주관
제10차 (13.5.28 ~ 29)	인도네시아 발리	-	인니 정통부(MCIT) 주관
제11차 (14.5.6~8)	사우디 제다	방송 경험의 확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주관
제12차 (15.5.26~2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KKMM, IPTTAR 공동 주관
제13차 (16.5.24 ~ 26)	한국 인천	미디어 콘텐츠의 새 지평	미래창조과학부(MSIP), 정보통신산업 진흥원(NIPA) 공동 주관
제14차 (17.6.6 ~ 8)	중국 청도	글로벌 발전의 선봉으로서의 미디어	중국 광전총국 주관
제15차 (18.5.10 ~ 12)	인도 뉴델리	아시아 지역의 스토리텔링	인도 정보방송부 주관
제16차 (19.6.12 ~ 13)	캄보디아 시엠립	미디어 디지털화- 개도국 시장에 초점	캄보디아 정보부 주관
제17차 (22.5.12 ~ 13)	피지 (온라인 개최)	미래를 향해: 미디어 이미지의 재정립	피지 정부 주관
제18차 (23.5.23 ~ 24)	인도네시아 발리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미디어	인니 TVRI 주관
제19차 (24.9.1 ~ 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미디어 : 새로운 오디세이	말레이시아 통신부 주관

* 2017년·2019년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AMS 참가·주제발표

③ **툰 압둘 라작 방송 정보 연구소(IPPTAR, Institut Penyiaran dan Penerangan Tun Abdul Razak) 관계자 면담**

□ 개 요

○ 일 시 : 2024. 9. 3.(화), 12:00 ~ 13:00

○ 장 소 : BAC Spaces 內 회의장

○ 면담자

- (대표단) **엄정환** 국제협력담당관, **김혜원** 주무관, **정혜선**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임연구원 등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명, 시청자미디어재단 2명, 한-영 통역사 1명 배석

- (IPPTAR) **로슬란 아리핀** 소장, **모하마드 라슬** 멧 세만 비서관

□ 주요 논의 사항

【 말레이시아 미디어 송출 】

○ 대표단은 말레이시아의 공식언어 4가지(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를 뉴스 등의 방송을 할 때 어떻게 편성하고 송출하는지를 문의

- 각기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송출되어야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관건이며, 프라임 타임을 두고 서로 경쟁하기도 함

- 각 언어 자막이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가 행사와 관련한 방송에만 들어가는 정도이며, 말레이시아 제1언어가 말레이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송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답변

【 미디어 공공성 유지 】

- 대표단은 온라인 미디어가 보유한 공공성과 신뢰성 개선을 위해 IPPTAR가 수행하고 있는 교육전략은 무엇인지 문의
 - 온라인 미디어와 관련하여 윤리, 기술 등을 포함한 과정이 있고, 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한된 교육만을 하는 것은 아님
 - 일년에 한 번 ‘프레스 데이’를 개최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하며, 지원받은 재정은 시니어 미디어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고 답변
- 대표단은 연령, 지역, 소득수준 등에 따른 디지털 및 미디어 이용 격차 심화에 대한 IPPTAR의 의견 문의
 - 말레이시아는 와이파이와 인터넷이 잘 갖추어져 있어 디지털 및 미디어 이용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않으며,
 - 다만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알맞게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 등을 전파하고 있다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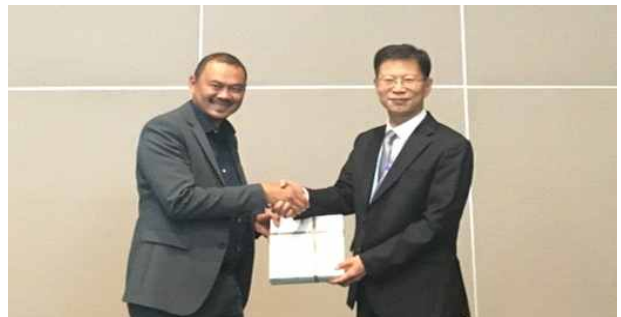
【 미디어 연구 분야 협력 】

- 대표단은 IPPTAR에 미디어 분야 연구팀이 있는지 문의
 - IPPTAR에는 1개의 작은 미디어·방송 분야 연구팀이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한국의 미디어 연구기관과 정보교환 등의 협력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답변

대표단과 회의 장면



대표단 기념촬영



[참고2] 툰 압둘 라작 방송 정보 연구소 (IPPTAR) 개요

□ 개요

- (기관명) 툰 압둘 라작 방송 정보 연구소 (IPPTAR, Institut Penyiaran dan Penerangan Tun Abdul Razak)
- (설립일/소재지) 1971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원장 : Rosalan Ariffin (24년 취임)
- (주요역할) 말레이시아의 방송사 및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AIBD와의 관계) 방송 관련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기술적 지원과 지식 교환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송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
 - IPPTAR는 AIBD의 회원국 기관으로서 다양한 국제 워크숍, 세미나,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

□ 주요 활동

- (공동워크숍) 미디어의 그린 혁명에 관한 워크숍을 AIBD와 공동 개최
 -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관행을 장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가짜 뉴스 워크숍) 202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짜 뉴스의 확산 방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을 AIBD와 공동 개최
- (제19회 AMS 참여) 2024년 아시아 미디어 서밋*을 AIBD와 함께 준비 및 행사 공간 제공

4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 (AIBD,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 관계자 면담

□ 개 요

○ 일 시 : 2024. 9. 4.(수), 09:30 ~ 10:30

○ 장 소 : 웨라톤 페탈링 자야 호텔 內 회의장

○ 면담자

- (대표단) 엄정환 국제협력담당관, 김문준 감사관, 김혜원 주무관, 정혜선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임연구원 등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명, 시청자미디어재단 2명, 한-영 통역사 1명 배석
- (AIBD) 필로메나 그나나프라가삼 사무국장, 크리스찬스 나이르 회원 서비스 책임자, 아인 오스만 회계사, 레온 디네쉬 법률자문

□ 주요 논의 사항

【 미디어·콘텐츠 환경변화 대응 】

- 대표단은 온라인 상의 AI 딥페이크, 알고리즘 편향성, 폭력·혐오 조장 콘텐츠 등이 신규 미디어의 공공성·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
- 나쁜 뉴스에 끌리는 인간의 본성을 감안하여 통제가 필요하며, 언론인 스스로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성찰, 직업교육,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답변

【 미디어 보편적 이용환경 조성 】

- 대표단은 온라인 미디어 발전에 따라 미디어 접근권과 보편적 제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AIBD의 역할은 무엇이며, 현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문의

- 정보접근성도 인간 권리 중 하나이며, AIBD는 워크숍을 통해 소외계층 접근성, 저널리즘 윤리 등을 다루고 있음.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소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답변
- o AIBD는 한국이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지를 문의
 - 한국은 현재 12개 시청자미디어재단 산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전국에 총 17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연간 30~40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방문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버스를 개조(모바일 스튜디오 등)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
- o AIBD는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령층 등 정보접근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는 등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

【 한국과의 협력 강화 】

- o 대표단은 AI 신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는 관심이 많지만, AI 윤리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프리서밋 주제는 AI 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
 - 한국측의 의견에 동의하며, 내년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 AMS에서 한국이 주제 발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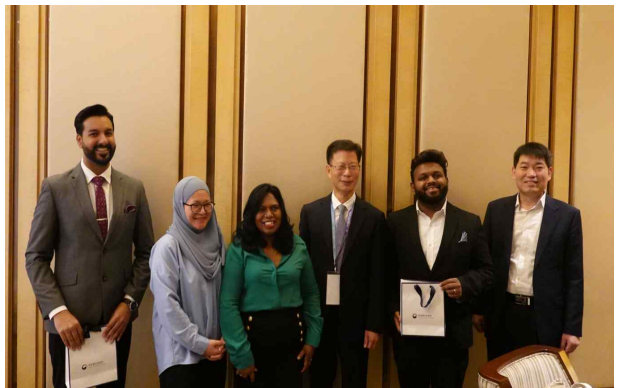
- AIBD는 2026년 AMS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
 - 대표단은 AMS 개최 관련하여 과기부가 한국을 대표하여 AIBD 정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방통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 이므로 관계부처 협의 등 내외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
- 아울러 AIBD는 방통위가 한국에서 개최하는 IBCC*(방송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9.26개최)에 사무국장(필로메나 그나나프라가삼)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AIBD 측에서는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함
 - * IBCC :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production Conference

- < 방통위와 AIBD 협력 경과 >**
- 장·차관급 협력
 - (2017년) 고삼석 상임위원, AMS 세션 참석 발표(주제 : 문재인 정부 미디어 정책)
 - (2018년) 고삼석 상임위원, 시청자미디어재단-AIBD 국제세미나 참석('18.11.6.)
 - (2019년) 고삼석 상임위원, AMS 세션 참석 발표(주제 : 디지털 혁명 시대의 대한 민국 미디어 정책)
 - 방통위-AIBD 공동워크숍 ('22년~)
 - (2022년) '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 (2023년) AMS 사전행사로 '미디어 리터러시 : 보다 정보화된 사회 만들기' 주제로 개최
 - (2024년) AMS 사전행사로 '취약그룹 미디어 접근성 증진' 주제로 개최

대표단과 회의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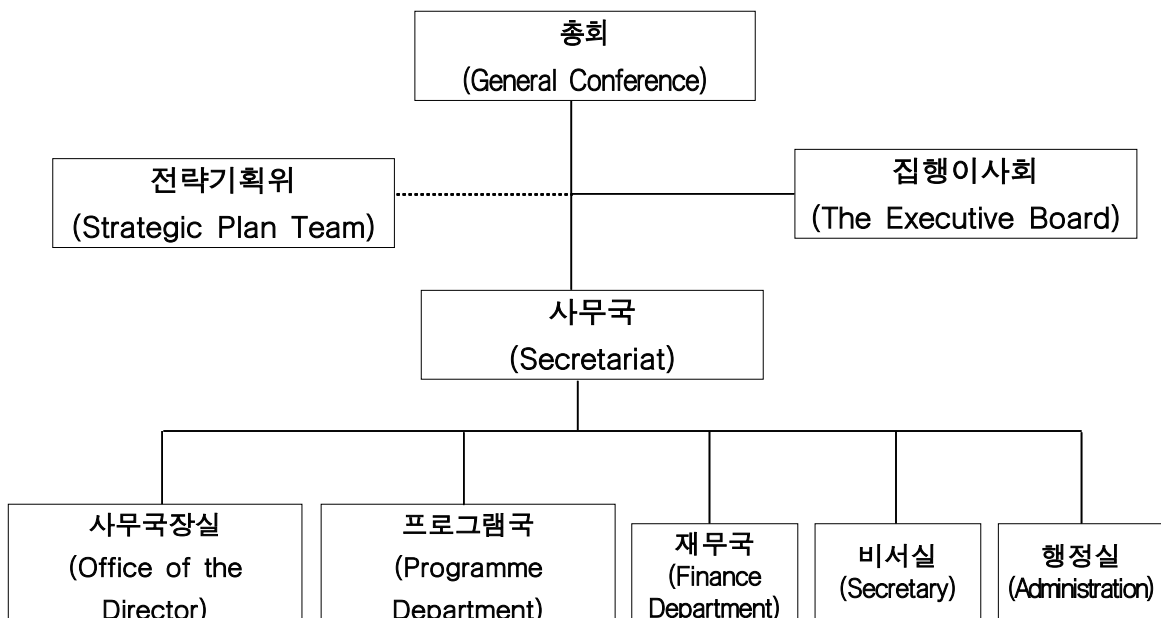
대표단 기념촬영



[참고3] 아·태방송개발기구(AIBD) 기관 개요

□ 개 요

- (기관명)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 AIBD)
- (설립일 / 소재지) 1977. 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사무국장 : Philomena Gnanapragasam ('19.8 취임, '23.9 연임 결정)
- (설립 목적) 유네스코(UNESCO)의 주도 아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UN-ESCAP) 지역 내의 전자 미디어 발전 촉진 위해 설립
- (회원국) 총 26개국, 91개 정·준회원
- 정회원국 : 한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인도, 태국, 베트남 등
- (구성) 1999년 제25차 연례회의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총회 및 집행이사회 체제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며, 총회 지휘 하에 사무국을 두고 있음



□ 주요 활동

- (연수 프로그램 및 자문서비스) AIBD의 연수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25,000명 이상의 아·태지역 미디어 관련자가 참가했으며, 매년 약 50개국 1,500여명이 참가
 - 현재 75개 분야로 세분화 된 맞춤형 연수와 더불어, 관련 협회 및 방송사와의 합동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 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에는 연수 프로그램의 수혜자였으나, 2006년부터 KBS가 AIBD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방송사에 컨설턴트를 파견한 바 있으며, 선진제작기법 및 시스템구축 기술을 개도국 등에 전수 중
- (대화체 마련)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체로서 2004년에 아시아 미디어 서밋(AMS, Asia Media Summit) 출범
 - 아·태지역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정상급 국제방송회의로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중동, 북미지역에서 매년 60여개국 500여 명의 정부정책결정자, 언론사 대표 등이 참가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국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BS 등
 - ※ 정부기관, 방송사 모두 회원으로 참여하나 정부기관이 회원국을 대표함
 - 1977년 설립 당시 한국방송협회와 KBS가 참여
 - 한국 정부는 1978년 AIBD 설립협정에 서명(11.10일), 비준서를 AIBD 사무국에 기탁(12.12일), 당시에는 한국방송협회 명의로 가입
 - 2006년부터 방송위, 2008년부터 방통위가 한국 대표로 참여(현재는 과기정통부로 이관)